

북한 기도회

2024년 10월



1. 북한 주민들의 민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최근 북한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화난에 따른 환율 상승 및 북한 당국의 잘못된 정책으로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대북 제재로 부족해진 외화를 충당하기 위해 시중의 외화를 국가로 끌어 모으고, 시장 대신 국가 배급과 국영상점 중심 경제로 돌아가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책은 오히려 민생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이 진정으로 민생 안정을 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그리하여 실제적으로 주민들의 민생이 개선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북한 당국이 자신의 안위를 핵보유에 의존할 수 없음을 깨닫고 방향을 돌이키도록 기도합니다.



2. 홍수 피해를 입은 북한 주민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압록강 유역의 대규모 홍수로 인해 신의주시와 의주군을 비롯한 평안 북도와 만포시 등 자강도 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내지에서 들려오는 수해 피해와 북한의 대응은 매우 심각합니다. 수해 복구는 수재민 지원보다도 김씨 일가 초상화나 우상화 사적지 보존이 먼저이고, 각종 세외 부담 강요로 주민들의 부담이 크게 가중되는 형편입니다.

수해 피해에 더해 국가의 부담까지 떠안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수재민들과 수해를 입은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물자들이 공급되고 원활하게 수해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3. 북한 여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동안 가부장적 문화와 사회 체제 속에서 상대적으로 무시 받던 여성들이 장마당의 활성화에 따라 북한 사회를 이끄는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문화적 제약이 남아있는 가운데 여성들에게 가계 경제와 국가 노동력 및 인구문제까지 과도한 책임이 부여되는 모습입니다.

북한 여성들에게 하루 속히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고, 복음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리고 이들이 가진 폭넓은 관계망을 통해 북한 복음화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해외에 채류하고 있는 탈북 여성들과 해외 북한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사역도 안전에 유의하는 가운데 힘 있게 전개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4. 북한의 기독교 박해 중단과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지난해 10월 북송된 탈북자들 중에 성경을 접하거나 기독교 교리에 대해 들었다는 기록이 있는 사람의 경우 가차 없이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졌다고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가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신앙을 가진 탈북자들이 정치범으로 간주되어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북송된 신자들과 강제북송 중단을 위한 기도가 특별히 요청됩니다.

또한 선교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북한 내 지하교회 적발 사건들이 여러 지역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순교한 것으로 알려진 이들 뿐 아니라 갑작스럽게 행방이 묘연해진 가구들을 고려할 때 예상 피해 규모가 적어도 200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하루 속히 중단되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붙잡힌 성도들의 안위를 위해 기도합시다.



5.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정욱 선교사님이 억류되신지 4,000일이 되는 날을 맞아 한국정부를 비롯한 각계의 석방 촉구 성명이 있었습니다.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와 탈북민 출신 김원호(2016), 함진우(2016), 고현철(2016)씨, 그리고 조선족 사역자들이 생사나 소재조차 알려지지 않는 가운데 북한의 억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이들 갇힌 선교사들을 잊지 않고 계속 기도하게 하시며 갇혀있는 선교사님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하심을 얻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이들이 하루빨리 자유함을 얻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6. 해외 북한선교현장의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러시아에서 탈북민 사역을 하시다가 러시아 정보기관에 의해 간첩혐의로 체포된 백 모 선교사님의 구금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10~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북러 관계 밀착으로 해외 북한 노동자와 탈북자 사역의 위축 우려가 높아지던 중에 발생한 이번 사건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는 해외 북한 선교 현장에 대한 우리의 기도가 절실함을 일깨워줍니다.

체포된 백 선교사님의 안전과 무사귀환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선교사님들의 안전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백모 선교사가 수감된 모스크바 레포르토보 구치소〉

7. 선교 현장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국경지역의 현장 사역자와 북한 성도들이 계속해서 기도제목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제 3국 북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이단들의 사역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통일교를 비롯해 여러 이단들이 적극적으로 사역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여러 지원을 명목으로 해외 탈북 여성들에게 접근하는 이단들의 행보가 끊어지도록 기도합시다. 신앙을 가진 탈북 여성들에게 분별력을 주시어 거짓에 속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여성들을 양육하는 현장사역자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분별력을 더하시도록, 그리고 지혜롭고 담대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두 손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

새번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